

2024 알제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6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석유·가스 의존 경제구조 개편 위해 산업 다각화 역점 추진	6
나. 수입 규제 소폭 조정에도 불구, 지속 유지 전망	8
다. 투자법 개정,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도모, 효과는 미지수력	9
라. 중국·러시아·EU와의 경제협력 강화	10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3
2. 시장 분석	27
가. 시장 특성	27
나. 교역	28
다. 투자	33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5
가. 교역	35
나. 투자	39
다. ODA	40
라. 협력 유망 분야	40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44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5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5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56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57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8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석유·가스에 힘입어 2024년에도 견조한 경제 흐름을 이어갈 전망 (현상 유지)

- 국제 원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거시경제 지표상 양호한 흐름을 지속
 - (성장) 2022년 3.2%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6%, 1.6% 성장 전망
 - * 알제리 정부에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4%대의 성장을 전망
 - (외환보유고) 2021년 467억 달러에서 2024년 681억 달러로 증가 전망(IMF)
 - * 2021년(467억 달러) → 2022년(620억 달러) → 2023년(695억 달러) → 2024년(681억 달러)
 - (물가) 2022년 9.7%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었으나 2023년 6.3%로 진정 전망
 - (경상수지) 2022년 이후 흑자세 유지, 2024년에는 소폭 적자 전망
 - * 수입 규제 등을 통해 외환보유고 방어 및 무역수지 개선하고 자급자족 경제 추진
 - (환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유입 등으로 안정세 유지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41.7	42.6	43.4	44.3	45.2	46.1	47.0	48.0
명목GDP	십억 달러	170.5	174.9	171.6	145.0	163.2	187.7	213.8	240.2
1인당 명목GDP	달러	4,080	4,110	3,950	3,270	3,610	4,070	4,550	5,010
실질성장률	%	1.3	1.2	1.0	-5.1	3.5	3.2	2.6	1.7
실업률	%	11.7	11.7	13.6	17.9	18.8	16.9	17.1	17.6
소비자물가상승률	%	5.9	3.5	2.4	2.1	6.6	9.7	8.9	6.3
재정수지(GDP대비)	%	-6.5	-6.9	-9.3	-16.8	-10.5	2.3	-6.1	-6.8
총수출	백만 달러	34,570	41,100	35,300	21,900	38,600	65,100	51,000	46,400
(對韓 수출)	"	713	1,965	1,746	904	1,903	3,372	-	-
총수입	"	48,811	48,300	44,300	34,900	37,400	38,700	37,800	37,400
(對韓 수입)	"	1,238	950	701	254	197	233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4,241	-7,200	-9,000	-13,000	1,200	26,400	13,200	9,100
경상수지	"	-26,200	-16,900	-17,000	-18,200	-4,500	18,300	4,200	-70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10.89	116.61	119.44	126.75	135.00	142.11	135.00	132.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3	8.5	0.3	0.2	-0.5	0.7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2.3	14.7	13.8	11.4	8.7	0.9	-	-

자료: EIU, IMF, UNCTAD, 한국무역협회

- ※ 석유·가스 의존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산업 다각화 역점 추진
- ※ 외환보유고 방어 및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 규제 지속 유지
- ※ 투자법 개정,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도모, 효과는 미지수
- ※ 중국·러시아·EU와의 경제협력 강화

가. 석유·가스 의존 경제구조 개편 위해 산업 다각화 역점 추진

▣ ('15~'20)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 경험, 석유·가스 비중 조절 필요성 대두

- 2015~2020년 석유·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알제리 경제에 큰 타격
 - 알제리의 석유·가스 의존도 : 전체 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60%가량 차지
 - * 탈석유·가스 정책 추진으로 전체 수출 중 석유·가스류 비중은 최근 다소 줄어들고 있음
 - 명목GDP(억 달러) : '14년 2,139 → '17년 1,705 → '20년 1,450 → '23년 2,138
 - * 경제성장률 : '14년 3.8% → '17년 1.3% → '20년 △5.1% → '22년 3.2%
- 정부 재정 악화로 각종 프로젝트 중지, 외환보유고 고갈 위기 직면
 - 2015~2020년 무역수지 적자 연거푸 기록,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난 봉착, 재정난 심화
 - * 알제리 외환보유고(억 달러) : '16년 1,146 → '18년 799 → '20년 482 → '22년 620
 - * 외환보유고 감소세가 이어지다 '22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 재정 적자(GDP 비중) : 2015년(-15.6%), 2017년(-6.5%), 2020년(-16.8%) → 2022년(2.3%)
-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알제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며, 알제리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非석유·가스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 현지 제조·생산 진흥, 관광산업 개발 등 다방면으로 국내 산업 육성 노력

-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의료기기,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해 있으며 이를 지속 육성할 계획임
 - 알제리 전체 GDP의 45.7%를 2차산업이 차지(3차산업은 47.3% 차지)하고 있으나, 질적·양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 경쟁력이 부족한 수준임
- 알제리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규제 완화,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관료주의, 부패, 불투명한 관행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아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함에도 이러한 수입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음
 - * 다만, 최근 알제리 정부에서는 수입 규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음
 - * 국제투명성기구의 2022 부패인식지수에서 알제리는 116위를 차지함(덴마크가 1위 차지)
- 자체적인 자본 및 기술, 인력 부족으로 산업을 다각화하기 어려운 알제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활용하려는 입장
 - 2022년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명문화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외국인에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나마 FIAT가 신규 공장 설립에 2억 유로를 투자한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꼽힘
- 관광·MICE산업 활성화 추세, 적극적으로 국제행사 유치
 - 2023 아프리카 네이션스 챔피언십(CHAN)과 2023 아랍 스포츠게임을 개최하는 등 역내 스포츠경기 유치에 적극적
 - 개별 해외 관광객(inbound) 유치보다는 국내(내국인) 관광산업 진흥 및 국제행사 유치에 중점

나. 수입 규제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 전망

▣ 외환보유고 관리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 유지

- 2019년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 gard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유지 중
 -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관세에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 그간 FTA 체결 국가 대상으로도 예외 없이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 FTA 체결 국가 제품은 추가 관세를 면제함
 - * 휴대전화, TV, 냉장고, 화장품 등 총 992개 품목에 대해 적용 중
- 국내 미생산 인증 규제(속칭 ‘알렉스[ALGEX] 규제’) 지속 시행
 - 의약품, 전자제품 등 자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정 수준 품질로 시장 수요를 충족할 경우 경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속 시행 중
 - * 알렉스(ALGEX)는 알제리 수출진흥청을 말하나, 동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속칭 ‘알렉스(ALGEX) 규제’라고 일컬어짐
 - 수입자가 알제리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국내 미(未)생산 제품 확인서’를 알제리 국내 결제은행에 제출해야 은행의 수입대금 결제 진행이 허가되며, 매번 거래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 허가’에 해당
 - * 실제 알제리에서 필요한 품목임에도 동 승인이 지연되어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매번 승인을 받는 것이 몹시 어렵기 때문에 對알제리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임

▣ 일부 민생 관련 규제는 소폭 완화될 전망

- 2023년 들어 중고자동차와 완성차의 수입이 일부 재개되고 완성차 현지 생산도 재개 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됨
 -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한 국가이며 산유국답게 저렴한 연료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동차가 중요한 교통 수단임
 - 알제리 정부는 2015년 이후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자 자동차 수입 쿼터제 도입, 수입 허가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2019년에는 완성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20년에는 중고차 수입과 완성차 현지 생산도 금지함

- 2023년 초, 알제리 당국은 개인자격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완성차 수입허가 발급과 완성차 현지제조승인도 개시함
 - 완성차 수입허가 관련 27개사가 사전 승인을 득하였으며 FIAT, JAC, OPEL 등 3개 브랜드가 최종 수입허가를 득함. 시간이 갈수록 최종 승인허가를 득하는 기업은 늘어날 전망
 - 완성차 현지제조승인과 관련해서는 까다로운 현지부품조달률 조건과 투자 이후 제3국 수출이행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 기업도 관련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알제리 시장에 재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알제리 테분(Tebboune) 대통령은 2023년 초 “수입 규제 조치로 국민들의 수요를 저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이어 정부 고위 관료도 “수입 규제와 관련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언급
 - 2024년 말 대선을 앞두고 과도한 수입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한편으로는 2022년과 2023년 소비자 물가가 각각 9.7%, 8.7% 인상되는 등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과도한 수입 규제는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다. 투자법 개정, 환경 개선으로 투자 유치 확대 도모, 효과는 미지수

▣ 외환보유고 확대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작업 진행 중

- 알제리의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확대 필요
 -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비대한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체제 등에서 탈피하여 민간기업 위주, 비석유·가스산업 위주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중요하며, 실제로 알제리 정부 당국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자동차 분야의 FIAT(2억 유로 투자, 연 9만 대 생산)가 대표적인 투자 유치 사례로 꼽히며, 협력사 투자까지 이어지면 파급효과는 더 커질 전망
 - * 알제리 전체 운행 차량(약 700만 대) 중 연식 10년 이상의 차량이 59%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FIAT 외 다른 완성차기업의 투자도 예상되는 상황
-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발표('22.8)
 - '21년 9월, 알제리 총리는 '16년 제정된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22년 11월 발표된 세부 시행령은 투자청(ANDI)의 확대 개편 및 각 도(wilaya)별 외국인 원스톱 창구 개설,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심각한 관료주의, 불투명한 중앙집중적 의사결정체계,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반외국인 정서 등으로 당장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
- * 알제리 FDI 유입액(억 달러) : 14.8('18) → 13.8('19) → 11.4('20) → 8.7('21) → 0.9('22)

■ 외국인 투자자 권리 보장 등 현실적 투자 유치 장애의 해결이 필요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와 안정성 보장 등 개선 필요
 - 상황에 따라 빈번히 변경되는 알제리 투자법 및 세부지침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
- 알제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중동·아프리카 내에서도 하위권 기록
 - 과실 송금의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한 보호주의 경향, 불투명한 행정과 관료주의, 법적 안정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등이 걸림돌
 - * EIU는 2018~2022년 기준, 알제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중동·아프리카 17개국 중 15위라고 발표 하였으며 2023~27년 기준으로는 13위로 전망
 - 알제리 기업의 기술력이나 제조업 노하우가 부족해 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기업의 진출이나 파트너십 제휴 등이 필요하나 외국인 투자를 보장해줄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한 것이 현실

라. 중국·러시아·EU와의 경제협력 강화

■ 러시아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지속 확대

- 러시아는 안보·외교에 있어 알제리의 주요한 파트너
 - 알제리는 식민지 시절 독립투쟁(1954~1962)을 지원해준 소련(및 러시아)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러-우 사태 이후 양국 관계는 더욱 강화됨
 - 현재 양국 사이의 교역액은 연 20억 달러에 달하며 군사협력도 매우 활발한 편임
 - * 러시아는 알제리 무기 및 군사장비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2023년 6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함
 - * 특히 세계적인 가스 생산국이기도 한 양국은 에너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인데,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이 세계 가스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강화

- 알제리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자원 개발, 무역 확대 등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항구 개발, 광산 개발(철광석, 인광석, 아연 등), 신도시 건설 등 다수 프로젝트 추진
- 2023년 7월,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확대함
 -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사업뿐 아니라 항공우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대만과 신장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알제리는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등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음

■ EU의 알제리산 가스 수요 증가로 EU와 긴밀한 관계 유지

- 러-우 사태 발발과 동시에 알제리산 가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자 알제리는 EU 각국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음
 - 2023년 5월, 포르투갈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알제리 테분 대통령은 경제협력 강화를 천명함
 - 하지만 프랑스와는 과거사 문제로, 스페인과는 서부 사하라를 둘러싼 갈등으로 다소 서먹한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신정부 집권 4년차,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24년 말 재선 유력
- ※ 유가 상승으로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는 등 당분간 경제 안정세 유지
- ※ 개정 투자법 발표와 각종 투자 유치 정책으로 투자환경 개선 의지 표명
- ※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할 전망

가. 정치 환경

■ 1996년 11월 개헌으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수립

- 대통령은 5년 임기의 국가원수(Chef de l'Etat)로서 군 통수권, 총리·각료 임명, 대통령령(décret présidentiel) 제정, 긴급명령권, 하원 해산권 등 권한 행사
 - 외형상으로는 행정부, 양원제 입법부 및 독립적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지향하나, 동시에 대통령 대권(Magistrature Suprême) 명시, 삼권 통합·조정 역할을 강조
-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1989년 개헌으로 복수정당제도 도입
 - 국가인민의회(APN : 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로 일컬어지는 하원은 총 407석으로 구성.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하에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며 입법권, 정부 감독권 및 대정부 질의권, 조약·협정 비준 동의권, 내각 해산권, 외교정책 심의·결의권 등의 권한을 보유
 - 국가평의회(Conseil de la Nation)로 일컬어지는 상원은 174석으로, 전체의 1/3은 대통령이 임명, 2/3는 각 도(wilaya)에서 선출

▣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혁명 주체 세력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 유지

- 무장투쟁을 통해 132년간의 프랑스 식민 지배에서 해방, 독립 쟁취
 - 1830년, 프랑스는 형식상 오스만 튀르크의 신하인 알자자이르 태수가 현지 주재 프랑스 영사를 모욕한 사건을 구실로 알제리를 침공해 식민지화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 탈식민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알제리만은 직할통치를 고수하고 각종 차별을 지속함으로써 무장투쟁 야기
 - * 이웃 모로코, 튀니지는 프랑스 보호령에서 각각 1955, 1956년 독립한 반면, 프랑스 제4공화국은 헌법상 국토를 '본토 프랑스'와 '알제리 프랑스'로 규정, 지배 강화
 - 1954.11.1 시작된 알제리 독립전쟁은 8년간 지속, 150만 명의 알제리인이 희생됐으며 프랑스 제4공화국의 붕괴와 샤를 드골 대통령의 집권(1958)을 초래
 - 1962.3.18 프랑스 제5공화국은 알제리 임시정부(GPRA)와 휴전코자 '에비앙(Evian) 협정'을 체결, 국민투표('62.7.1) 결과 알제리는 완전 독립('62.7.5)
 - * 알제리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율 91.87%, 독립 찬성 99.72%
- 독립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 및 '90년대 내전으로 혼란 지속
 - 독립전쟁 중심 세력인 민족해방전선(FLN :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의 일당 독재 지속, 군부 내 권력 투쟁에 따른 정권 교체 등 혼란 발생
 - * 이 당시까지 민족해방전선은 아랍사회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 1980년대 초 석유 파동, 경제난으로 동요한 민심 수습을 위해 자본주의로의 선회를 발표하고 1989년 다당제를 도입
 - 1990년 창당한 이슬람근본주의 정당 이슬람구국전선(FIS : Front Islamique du Salut)이 총선에서 승리하자 1992년 1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FIS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였으며, FIS의 저항으로 2002년까지 내전 지속(1992~2002)
 - '암흑의 10년(La Décennie Noire)'으로 불리는 알제리 내전 기간 중 무차별 테러와 학살로 약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외국인을 노린 테러 자행에 따라 당시 상당수의 대사관과 외국기업 철수
 - * 1994년 현지 주재 민간기업인 피살 및 주알제리 대한민국 대사관 잠정 철수(1996년 복귀)

■ 내전 종식 이후 현대 알제리의 정치

- 1999년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정착
 - FIS 세력과 협상, 대사면을 조건으로 무장테러를 중단하고 FIS 공식 해체
 - 국민화합법(1999), 국민평화화해헌장(2005) 등 정책 추진으로 정치 안정 달성
- 내전 종식 후, '암흑의 10년'이 남긴 공포로 인해 안정 지향성 강화
 - 정치적 혼란의 폭력 사태 전이를 피하고자 하는 안정지향적 성향 형성 및 강화
 - * 2011년 아랍의 봄은 알제리 정부의 대처와 국민의 안정지향적 성향으로 큰 소요 없이 수습
- 민중 시위, 정권 교체
 - FLN 소속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20년간 4선 집권 후 5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2019년부터 지속된 민중 시위(Hirak)와 군부 반대로 하야('20.4)
 - 두 차례의 대선 연기 끝에 2020년 12월 대선 실시한 결과, FLN 성향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이 당선되어 '20.12.19 취임

■ 차기 대선('24.12)에서 테분 대통령 재선 유력

- 가시적인 반대 세력이 없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테분 대통령이 큰 무리 없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
 - * '23년 하반기부터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나. 경제 환경

■ 유가 상승으로 외환보유고가 확충되는 등 당분간 경제 안정세 유지

-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등 양호하나 실업률 및 물가는 위험요소
 - EIU는 알제리 경제에 대해 2022년 3.2%에 이어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6%,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IMF는 2023년 3.0%, 2024년 2.6% 성장을 전망하였으며, 알제리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4%대의 성장을 전망

- 장치산업인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성장과는 별도로 실업률은 지속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물가는 차츰 안정세를 보일 전망
 - * 실업률(EIU) : 16.9%(’22) → 17.1%(’23) → 17.6%(’24) → 19.1%(’25) → 20.3%(’26)
 - * 물가(EIU) : 9.7%(’22) → 8.9%(’23) → 6.4%(’24) → 5.4%(’25) → 5.3%(’26)

〈알제리 거시경제 동향〉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경상수지(억 달러)	-170	-182	-45	183	42	-7
상품수출액(억 달러)	353	219	386	651	510	464
상품수입액(억 달러)	443	349	374	387	378	374
서비스수지(억 달러)	-67	-45	-37	-47	-60	-65
외환보유고(억 달러)	628	482	467	620	695	681
대외채무액(억 달러)	55	52	74	72	76	79

자료: EIU, IMF (2023.7 기준)

- 국제유가 안정세에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경상수지가 양호한 수준 유지
 - (원유 생산량) 하루 100.8만 배럴(’22) → 101.0만 배럴(’23) → 101.5만 배럴(’24)
 - (가스 생산량) 1,350억m³(’22) → 1,440억m³(’23) → 1,480m³(’24) → 1,520억m³(’25)
- 강력한 수입 규제와 국내 제조업 육성책에 따라 알제리의 非석유·가스류 생산 및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23년 목표치는 130억 달러에 달함
 - (非석유·가스류 수출) 20억 달러(’20) → 50억 달러(’21) → 70억 달러(’22)

■ 알제리 대외교역 동향

- 2023년과 2024년 알제리는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주요한 교역대상국으로는 유럽과 중국을 꼽을 수 있음
 - 알제리는 ’18년 이후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무역정보기업인 OEC에 따르면 ’21년 기준 전체 수입의 각각 49.3%, 18.5%를 유럽과 중국에서 차지함
 - * 2021년 알제리 전체 수출에서 각각 65.3%, 2.7%를 유럽과 중국이 차지

다. 산업 환경

▣ 산유국이며 사회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 주도 석유·가스 의존형 경제

- 민간경제의 발전 속도가 더디고 석유·가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체제
 -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후 국가 계획 하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사회주의 경제 개발 모델을 채택하여 철저한 통제를 통해 경제를 관리해온 바 있음
 -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적 잔재가 남아있고 공공 분야의 비중이 크며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 알제리 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60%가량을 석유·가스 분야에서 차지
-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11달러를 기록했던 2012년에는 경상수지 235억 달러 흑자, 경제성장 3.4%를 달성하였으나 2015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 되었으며 2021년 이후 다시 고유가가 유지되면서 경상수지와 경제성장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알제리의 원유 매장량은 약 122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2.3조m³로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0.7%와 1.2%를 차지함. 한편 전체 산업에서 농업은 10.7%의 비중 이며 제조업·광업 등 2차산업은 45.7%, 서비스업은 47.3%를 차지함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알제리 경제지표〉

(단위: 달러/배럴, 억 달러, %)

구 분	연평균 국제유가	경상수지	경제성장률
2012	111.63	+235	3.4
2015	52.32	-170	3.8
2017	54.25	-220	2.2
2019	65.30	-170	0.8
2021	70.86	-45	3.5
2022	100.93	+183	3.2

주: 북해산 브렌트유 기준
자료: STATISTA, EIU

■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

- 알제리는 2015년부터 탈석유·가스화 정책을 도입하며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분야 등을 선정하고, 이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내수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관련 수입을 줄이고, 나아가 수출까지 추진하여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 알제리는 약 4,500만 명의 인구 및 1인당 GDP 13,000달러(PPP 기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으로 아랍, 유럽, 베르베르 등의 복합적 문화 및 포용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자유로운 문화환경을 보유
 - 알제리의 국토 면적은 아프리카 1위, 세계 10위로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 산업 발달에 유리함
- 투자처로서 알제리의 매력도를 높여 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국 내 기업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 강화
 - 빈약한 제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 주요 성장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화학, 제철 분야 등을 선정
 - 주요 제품이나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수출기업을 장려하는 정책 강화
 - * 2023년 7월, 알제리 정부는 제1회 수출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테본 대통령은 IRIS(지난 3년간 4,500만 달러 수출) 등을 포함하여 13개 사에 수출유공훈장을 수여하고 치하함
 - 외국 자본 유치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하지만 오랜 프랑스식 관료적 행정 시스템, 다소 경직된 노동 관련 제도, 짧은 산업화 역사 및 산업 생태계 부재, 노하우 부족 등이 알제리 산업 다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에너지산업

- 알제리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알제리의 경제와 산업은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에너지산업에 집중될 전망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추세와 러-우 사태 이후 중요성이 커진 알제리산 가스의 위상은 알제리 경제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석유·가스 관련 각종 투자는 2026년까지 3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알제리는 EU, 미국, 중국 등의 주요한 석유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중
 - * 러-우 사태 이후 알제리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

- 한편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연간 1,000MW씩 총 15,000MW(태양광, 풍력, 지열 등)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나 실제 진행은 더딘 편임

■ 자동차산업 분야

- 자국 산업 보호와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
 - 2015년에는 완성차 수입 쿼터제를 도입해 연 35만 대로 수입을 제한하고 2016년에는 수입 쿼터를 8.3만 대로 대폭 줄임과 동시에 자동차 수입 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알제리 내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과 수입 쿼터를 연계
 - * 이에 따라 르노(2014), 현대(2016), 폭스바겐(2017)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 반제품 키트를 수출해 현지 조립하는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전환하였으나 2019년 알제리 정부는 현지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가 적다며 현지 조립조차 전면 금지함
 - 알제리 정부는 2019년 반제품 키트와 완성차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중고차 수입도 금지함
- '23년 들어 중고차·신차 수입과 현지 제도가 일부 재개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
 - 2023년 초, 연식 3년 이하 중고차의 개인 자격 수입이 허용되었으며 신차 수입 허가도 3개 사(FIAT, OPEL, JAC)에 대해 승인됨
 - * 신차 수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유통·AS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27개 사가 사전 허가를 득한 만큼 기존 3개 사 외에도 최종 승인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
 - 글로벌 기업의 알제리 현지 생산도 3년 만에 재개되었는데 투자 이행 5년 이내에 현지 부품 조달률 30% 달성 및 제3국 수출을 이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FIAT가 2억 유로의 투자를 감행하여 '24년 3월 현지 생산을 개시할 예정
 - * 연 9만 대 생산 규모로 협력사 투자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
 - FIAT는 현지 생산과 완성차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데 2023년 3월 첫 번째 FIAT 수입 차량이 알제리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판매 개시 단 2주 만에 15,000대의 주문이 쇄도하고 10만 명이 쇼룸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받음
 - * FIAT의 차량 판매가격이 2,200만~3,800만 원가량으로 저렴하지 않음에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간 수입 규제로 인해 억눌렸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FIAT의 알제리 판매가격(2023년)〉

모 델	가격 (VAT 포함, 디나르/원)
FIAT 500 Hybrid	2,380,000디나르/약 2,247만 원
FIAT 500X	3,435,000디나르/약 3,243만 원
FIATDoblo	3,178,000디나르/약 3,000만 원
FIAT Scudo	3,825,000디나르/약 3,610만 원
FIAT Ducato	4,019,000디나르/약 3,794만 원

자료: 적용 환율: 1디나르 = 9.44원 (2023.7.25 기준)

자료: Algeria360

- 중고차·신차의 수입 및 현지 생산 재개로 자동차부품산업, 유통물류산업, 보험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

■ 가전산업

- 알제리 가전시장은 내수 위주 조립 생산 수준이나 상당한 제조 역량 갖춘
 - 알제리의 가전산업은 내수시장을 겨냥한 로컬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의 생산 현지화 정책을 발판으로 지속 성장 중임
 - * 주요한 로컬 브랜드로는 Condor, Iris, Stream, Brandt 등을 꼽을 수 있음
 - 중국, 튀르키예, 한국 등으로부터 부품을 들여와 생산하면서 높은 성장세 구가
 - 한국 가전사인 삼성 및 LG전자는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LG전자의 파트너인 Bomare사는 합작 생산된 평판 TV를 2020년에 스페인으로 수출하기도 하였음
- 알제리 정부, 정책적으로 가전제품 생산 현지화 지원
 - 시장 수요가 많은 가전제품의 현지화를 통해 고용 창출 및 기술 축적의 기회를 마련하여 향후 수출까지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함
 - 현지 제조 생산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알제리 정부는 2018년부터 가전 완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현지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지원한 바 있음
 - 2019년에는 수입 금지 조치를 대체하는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제도를 도입하여 대부분의 가전제품 수입 시 6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음

■ 농식품시장

- 농식품산업은 전체 GDP의 10.3%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러-우 사태 이후 알제리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요성이 커짐
 - * 알제리의 곡물 수입량은 연 1,200만~1,400만 톤에 달함(FAO)
 - 2022~23년('22년 하반기에서 '23년 상반기) 알제리는 330만 톤의 밀과 120만 톤의 보리를 수확하여 전년보다 수확량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
 - * 2022~23년 밀 수입은 820만 톤, 보리 수입은 7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농식품 분야는 Cevital과 같은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농장 및 식품 기업은 영세한 수준
 -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국제 표준에 가까운 기술을 확보하고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
 -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되는 시장 특성상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낮고 요구사항 또한 까다롭지 않아 기업들이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보다는 낮은 가격에 내수시장 공급을 선호
- 알제리 정부는 러-우 사태를 계기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농식품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선정
 - 농식품산업 발전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Industries Agroalimentaires)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 추진 중

■ 환경산업

- 환경신재생에너지부에서 폐기물 및 재생에너지 부문을, 공공사업인프라부에서 수자원 정책 및 프로젝트를 관할하고 있음
 - 환경신재생에너지부는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공공 사업인프라부는 물 부족 극복을 위한 해수 담수화 시설 확충이 주요한 현안임

〈알제리 및 튀니지 주요 세제 업데이트〉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알제리	26.0%	제조업(19%) 관광·수자원·건설(23%)	35%	- 연 384만 디나르 이상	30%		19%	
튀니지	15.0%	공예(10%) 금융업(35%)	35%	- 연 5만 디나르 초과	25%		19%	

자료: 주재국 발표내용 등 무역관 조사 종합

알제리와 튀니지의 세제

- (알제리) 법인세는 19~26%가 부과되며, 개인소득세는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인 35%가 부과됨
 - 제조기업의 법인세는 19%, 관광, 건설, 수자원 분야의 법인세는 23%이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26%가 부과됨
 - 개인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며 연소득 24만 디나르 미만(0%), 연소득 24만~48만 디나르(23%), 48만~96만 디나르(27%), 96만~192만 디나르(30%), 192만~384만 디나르(33%), 384만 디나르 이상(35%)로 구분됨
 - * 외국인인 경우 대체로 연 소득 384만 디나르(약 US 27,879.67달러, 1달러=137.76디나르, 2023년 10월 4일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법인세, 부가세 등 명목으로 30%를 징수하며 이와는 별도로 배당(15%), 이자(10%) 등에도 부과됨
- (튀니지)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15%이나 업종에 따라 변동적
 - 일반적인 법인세율은 15%이나 공예품 등에는 10%가 부과되며, 금융업·통신업 등에는 35%가 부과됨
 - 연 5만 디나르(약 15,697.98달러, 1달러=3.18디나르, 2023년 10월 4일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는 35%가 부과됨
 - * 연소득 5,000 디나르 미만(0%), 5001~20,000 디나르(26%), 20,001~30,000 디나르(28%), 30,001~50,000 디나르(32%), 50,000 디나르 초과(35%)로 구분됨
 - 일반적인 지출시마다 25%의 원천징수세가 징수되며 이자(20%) 등에도 부과
 - 일반적인 부가세율은 19%이나 업종에 따라 13%나 7%가 적용되기도 함

〈알제리·튀니지 진출 및 비즈니스 여건〉

국가명	법인설립 요건 (투자비용)		최소자본금 (천달러)		현지인 고용의무		기타 참고사항
	대표	에이전트쉽	금액	분야	적용여부 (명칭)	분야	
알제리	현지인 혹은 외국인	불요	1		X		
튀니지	현지인 혹은 외국인	불요	0.5		X		

자료: 주재국 발표내용 등 무역관 조사 종합

■ 알제리와 튀니지의 비즈니스 여건

- (알제리) 최근 투자법 개정을 통해 '49/51 Rule'을 폐지
 - 외국인투자자의 100% 투자 및 외국인이 대표를 맡는 것도 가능해졌으나 에너지 분야 등 일부 전략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49/51 Rule'이 적용되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음
 - * 전략분야로는 제약업, 교통운수업, 에너지 및 광물 관련 업종이 포함됨
 - 법인 설립 단계에서 현지인 고용의무는 없으나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을 장려하고 있음
- (튀니지) 업종에 따라 당국의 사전승인 필요
 - 교통, 통신, 교육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시 당국의 승인이 필요
 - 유한책임회사(SARL)의 경우는 설립이 용이하나 유한회사(SA)의 경우는 최대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음
 - * 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은 3,000달러이며 유한책임회사의 최소자본금은 500달러 임

라. 정책·규제 환경

■ 국민 삶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 물가 및 재정수지가 중기 위험요소

- 2024년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알제리는 국민 삶 개선에 정책 목표를 집중할 것으로 보임. 고유가에 따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복지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식품·연료 관련 보조금 지원도 유지
-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재정수지 악화에 따라 균형 재정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수지 악화가 알제리의 중장기적 위험요소
 - * 알제리의 재정수지 및 전망(GDP 대비 %, EIU) : 2.3%('22) → -6.1%('23) → -6.8%('24)
- 최근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관리 목표(연 3.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2023년 7월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파기하면서 국제 곡물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물가 안정세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 * 알제리의 물가 변동 추이·전망(EIU) : 9.7%('22) → 8.9%('23) → 6.4%('24) → 5.4%('25) → 5.3%('26)

▣ EU·아프리카와 교역 확대를 추구하나, 전체적으로는 규제 일변도인 통상정책

- 알제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미가입국으로 WTO 규범과 무관하게 수입 규제 적용
 - 1987년부터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온 바 있으나 2023년 말 현재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 옵서버 상태를 지속
 - 알제리 측에서 WTO 가입조건인 원유가격 국제시장가 적용 조항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 없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 난항
 - * 알제리 정부, 원유·가스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 중
 - *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관계로 당분간 알제리의 WTO 가입은 요원할 것으로 분석
- EU-알제리 FTA
 - 2005년 9월 발효 이후 교역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완전 자유화에는 실패
 - FTA 체결 이후, 알제리의 對EU 수입이 대폭 늘어났으나 對EU 수출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자 알제리는 불평등성을 강조하며 재협상을 요구
 - 한편 EU는 양측 간의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입 규제 조치와 임시추가수입 관세(DAPS)를 EU측 제품에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며 2022년 5월, 알제리가 스페인산 제품의 수입을 2개월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 점에 대해서도 협정 위반임을 지적한 바 있음
 - * 2022년 스페인이 서사하라 문제에서 모로코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알제리는 스페인과의 경제협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GAFTA(Greater Arab Free Trade Area : 범아랍 자유무역지대)
 - 1982년 2월 튀니지에서 협상 체결,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
 -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튀니지, 예멘, 모로코, 수단, 모리타니아, 팔레스타인, UA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카타르, 레바논, 리비아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을 갖춘 경우 관세 면제
- AfCFTA(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 아프리카 연합 회원국 55개국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 2015년 6월 요하네스버그에서 협상 시작, 2018년 3월 21일 알제리 포함 44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협정 체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효가 지연되다 2021년 1월 발효

■ 무역수지 개선 및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강력한 수입규제정책 유지

- (추가 관세) 2019년 1월부터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유지 중
 -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FTA 체결 국가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
 - * 휴대전화, TV, 냉장고, 화장품 등 총 992개 품목에 적용
- (국내 미생산 인증 규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알제리 내 생산되는 품목의 공급량 및 품질이 현지 수요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 금지 조치 시행
 - 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국내 미(未)생산 제품 확인서’를 매년 승인·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 (외환 거래 통제) 송금 거래(T/T) 제한, 알제리 국내 은행 결제를 의무화

■ 알제리의 ESG 동향

- (환경)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친환경 발전 지속 추진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친환경 레짐에 능동적으로 참가
 - 파리협정 당사국인 동시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참여
 - 국토의 84%를 사막이 차지하고 있어, 사막화를 저지하는 것에 큰 관심
 - 총 15,000MW(태양광, 풍력, 지열 등)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추진
 - 이상고온과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확대
 - * 2023년 7월 전례 없던 산불로 알제리 북부에서 최소 34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 UN 환경패널은 지중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이며 더 많은 폭염, 산불, 가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함(2023년 7월)
- (사회) 사회적 불평등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노력 강화
 -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와 하위 50%의 평균값 차이는 10배이며, 자산 기준으로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4.5%, 상위 10%가 57.0%를 차지
 - *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2.5%에 불과(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사 기준에 도입하는 움직임 개시
 - 일부 회계법인, 감사 범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자체적으로 포함

- (거버넌스)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겸직 금지 및 재산 신고 의무화 조치 도입
 - 총리실 산하 국가중재관(Mediator)실을 두어 외투기업 분쟁 시 공정성 제고
 - 체크카드 및 인터넷 뱅킹 보급으로 현금 거래 비율 지속 감소
 - * 2022년 전자결제 건수는 270만 건(총 결제액 151억 디나르)이었으나 2023년 1~5월 기간 중에만 460만 건(총 결제액 103억 디나르)에 달할 정도로 급증
 - * 전자결제를 위한 체크카드는 누적 1,520만 장 발급

2

시장 분석

- ※ 풍부한 인구·자원과 내수시장을 갖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 ※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위해 산업 다각화 추진 중
- ※ 관세 등 직접적 수단 및 외환 거래 통제 등 간접적 수단으로 수입 규제 시행 중
- ※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교두보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

가. 시장 특성

▣ 풍부한 인구·자원과 내수시장을 갖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

- 원유 매장량 약 122억 배럴, 천연가스 매장량 약 2.3조㎥로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0.7%와 1.2%를 차지하며 아연, 인광석, 철광석 등도 풍부한 자원 대국
- 약 4,500만 명의 인구(중위 연령 28.2세) 및 PPP 기준 1인당 GDP 13,000달러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 아랍, 유럽, 베르베르 등 복합적 문화 및 포용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자유로운 문화환경을 보유
 - 국토 면적도 아프리카 1위, 세계 10위로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음

▣ 제조업·관광 등 산업 다각화를 통해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 경감 추진

-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 추진
 - 석유·가스 부문이 국가 전체 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60% 상당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전자, 건축자재, 관광 등의 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 중
 - * 강력한 수입 규제 등을 통해 가급적 알제리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수입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외국 자본 유입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 법령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투자환경을 변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 정책 일관성 및 투자 안정성 부족으로 많은 투자를 유지하고 있지는 못하나 중국, 중동 등으로부터의 투자는 꾸준한 편

나. 교역

▣ 알제리의 수입 동향

- 2021년 알제리의 전체 수입액은 약 34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7.7% 증가
 - * 알제리는 2018년 이후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OEC의 자료를 참고(‘23.10 기준 최신 자료)
 - 중국은 지속적으로 알제리의 1위 수입국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1년 수입 규모는 63.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8.5% 차지
 - 전체 수입 규모가 7.7% 증가한 가운데 상위 10개국 중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 증가
 - * 한국은 알제리의 27대 수입국으로 1억 9,724만 달러 규모를 수입(전년 대비 22.5% 감소)

〈2021년 알제리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6,340,493,871	18.5%	13.3%
2	프랑스	4,348,994,810	12.7%	-7.7%
3	스페인	2,192,696,820	6.4%	1.6%
4	독일	2,163,598,972	6.3%	21.3%
5	이탈리아	2,073,798,779	6.0%	0.3%
6	튀르키예	1,695,979,309	4.9%	17.2%
7	브라질	1,518,387,137	4.4%	28.7%
8	러시아	1,479,417,171	4.3%	62.9%
9	아르헨티나	1,159,945,423	3.4%	7.3%
10	캐나다	861,859,226	2.5%	90.0%
11	아랍에미리트	796,554,577	2.3%	34.7%
12	미국	757,042,741	2.2%	7.3%
13	폴란드	704,777,413	2.1%	62.1%
14	인도	702,582,335	2.0%	29.5%
27	대한민국	197,241,286	0.6%	-22.5%
수입 총계		34,286,908,188	100.0%	7.7%

자료: OEC (2023.10 기준 최신 정보)

- 품목군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밀, 우유, 식용유, 옥수수, 설탕 등 농산물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동차, 의약품, 철광석, 가스터빈, 자동차부품 등이 주요한 품목임

〈알제리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US 달러, %)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수입액	비중
1	1001	밀	2,203,306,794	6.4%
2	0402	우유	1,273,320,808	3.7%
3	8703	자동차	800,036,654	2.3%
4	1507	콩기름	797,996,504	2.3%
5	1005	옥수수	795,353,045	2.3%
6	1701	설탕	777,270,059	2.3%
7	3002	백신	773,476,900	2.3%
8	3004	의약품	771,206,758	2.2%
9	2601	철광석	733,126,142	2.1%
10	8411	가스터빈	558,473,605	1.6%
11	8708	자동차부품	497,454,071	1.5%
12	7304	파이프	477,683,397	1.4%
13	1201	콩	464,500,219	1.4%
14	3901	에틸렌 폴리머	414,877,501	1.2%
15	8525	방송장비	338,568,598	1.0%
16	8481	밸브	318,788,543	0.9%
수입 총계			34,286,908,188	

자료: OEC (2023.10 기준 최신 정보)

■ 알제리의 수출 동향

- 2021년 알제리의 수출액은 약 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
 - * 알제리는 2018년 이후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OEC의 자료를 참고('23.8 기준 최신 자료)
- 2021년 수출액 급증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초기 원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알제리의 수출이 급감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
 - * 알제리의 수출액 추이(OEC) : 332억 달러('19) → 201억 달러('20) → 354억 달러('21)

-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약 73억 달러 수출을 기록, 전체 알제리 수출에서 20.7%의 비중 차지
 - 그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 수출 점유율 기록
 - * 10대 수출 대상국 중 대한민국, 미국, 브라질, 튀르키예를 제외한 6개국만 유럽 국가
 - 우리나라는 알제리의 제4위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 규모는 16억 8,153만 달러

〈2021년 알제리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US 달러, %)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중	증감률
1	이탈리아	7,316,266,394	20.7%	103.9%
2	스페인	5,062,017,891	14.3%	94.9%
3	프랑스	4,603,228,571	13.0%	64.7%
4	대한민국	1,681,563,262	4.8%	109.5%
5	미국	1,680,189,418	4.7%	279.3%
6	네덜란드	1,484,270,287	4.2%	177.9%
7	영국	1,277,967,214	3.6%	134.3%
8	그리스	1,265,534,570	3.6%	101.2%
9	튀르키예	1,079,058,686	3.0%	108.5%
10	브라질	1,042,987,396	2.9%	44.3%
11	싱가포르	1,031,888,400	2.9%	58.7%
12	중국	960,605,917	2.7%	7.7%
13	독일	826,163,871	2.3%	27.0%
14	튀니지	774,228,751	2.2%	-14.3%
수출 총계		35,390,672,476	100.0%	7.7%

자료: OEC (2023.10 기준 최신 정보)

- 품목군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원유, 가스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석유·가스 품목으로는 질소비료, 암모니아, 철강, 시멘트 등이 있음

〈알제리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US 달러, %)

순위	HS코드 (4단위)	품목명	수출액	비중
1	2711	천연가스	14,281,274,969	40.4%
2	2709	원유	10,695,842,162	30.2%
3	2710	정제유	6,234,710,043	17.6%
4	3102	질소비료	1,206,298,396	3.4%
5	2814	암모니아	714,236,988	2.0%
6	7207	반가공 철강	341,804,494	1.0%
7	7214	가공 전 철봉	272,364,575	0.8%
8	1701	설탕	243,536,966	0.7%
9	2804	수소	167,210,584	0.5%
10	2523	시멘트	158,427,539	0.4%
11	2510	인산칼슘	140,547,050	0.4%
12	0804	열대과일	134,470,217	0.4%
13	7213	열연 철봉	133,852,810	0.4%
수출 총계			35,390,672,476	

자료: OEC (2023.10 기준 최신 정보)

- 알제리는 비석유·가스 부문의 수출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비석유·가스 부문의 수출액은 70억 달러에 달하였고 2023년에는 1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입 규제 현황

- WTO 미가입국인 알제리는 관세 및 수입 금지 등의 직접적 수단 및 외환 거래 통제 등을 통한 간접적 수단으로 수입 규제를 시행 중
 - 외환보유고 고갈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수입 규제를 지속하고 있음
 - * 기존 수입 규제에 더해 신규 규제도 급하게 도입되거나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사
 -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등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기보다는 수입 금지, 수량 규제 등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

- (추가 관세) 2019년 1월부터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 유지 중
 -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FTA 체결 국가 제품은 면제
 - * 휴대전화, TV, 냉장고, 화장품 등 총 992개 품목에 적용
- (국내 미생산 인증 규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알제리 내 생산되는 품목의 공급량 및 품질이 현지 수요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입 금지 조치 시행
 - 수입이 필요한 품목은 '국내 미(未)생산 제품 확인서'를 매번 승인·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 (바코드 규제) 2022년 도입 이후 연기, 2023년 9월 말 재도입 예정
 - 알제리 상무부는 2021년 3월 관보를 통해 국제표준 13자리의 GTIN 바코드를 수입 상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바코드 규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함
 - 하지만 이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자 알제리 당국은 2023년 3월 29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이후 2023년 9월 말로 재연기함
 - 이 제도가 재개되게 되면 수출자는 한국에서 13자리 GTIN 바코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수입자는 바코드를 포함한 기타 정보를 양식에 기입해 알제리 상공회의소에서 승인받아야만 무역 거래가 가능해지며 재연기될지 재도입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외환 거래 통제) 송금 거래(T/T) 제한, 알제리 국내 은행 결제를 의무화

〈알제리 수출 및 진출시 필요 주요 인증〉

인증명(인증기관)	분야 (HS코드)	인증 마크	주요사항
할랄인증	식품	미발표	• 도입시기 : 2023년 9월 • 수입 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발표만 나온 상황이며 인증절차, 비용 등은 미정
규제승인 (Regulation Certificate)	자동차	없음	• 도입시기 : 2023년 5월 • 승용차 수입에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는 인증 • 절차 : 산업계약부 신청

자료: 주재국 발표내용 등 무역관 조사 종합

다. 투자

▣ 외국인 투자액 감소 추세 속 2023년 이후 반등세 확인

- 코로나19 사태 이전 연 10억 달러 이상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는 2022년 1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 알제리가 글로벌 FDI 대상지는 아니나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만 해도 각각 14.7억 달러와 13.8억 달러가 유입된 바 있음
 -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정치적인 불안정이 겹치면서 2021년부터 투자 유입액이 급감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89.8% 감소한 0.89억 달러 유입에 그침
 - 2023년부터는 알제리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회복되고 있음
- * 알제리 정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최근 진행 중인 FIAT의 투자만 해도 2억 유로 이상임을 감안할 때 2023년 들어 투자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
- * 2022년 알제리 정부는 기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자본 소유를 49%까지만 허용하는 '49/51 Rule'을 폐지하는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있음

〈對알제리 FDI 유입 및 유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입	1,475	1,382	1,143	870	89
유출	854	31	15	-52	71

자료: UNCTAD

- 알제리 정부는 국내외 투자가 100% 이상 증가하였다고 발표
 - 알제리 정부가 투자 유치액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외 투자 확대를 책임지고 있는 알제리 투자청(AAPI)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606건의 국내외 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되었으며 투자금액은 1조 840억 디나르(약 80억 달러)에 달함. 또한 전체 프로젝트 중 53건이 해외에서 투자한 FDI 투자라고 밝힘
 - 2022년 6월과 비교한 2023년 6월의 국내외 투자 건수는 무려 121%가 증가하였으며 6만 5,792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 * 제조업 관련 투자가 51%를 차지하였으며 건설(15%), 교통(14%) 분야가 그 뒤를 따름

▣ 알제리의 투자환경은 아직 열악한 상황

- EIU는 '18~'22년을 기준으로 한 알제리의 투자환경에 대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
 - 조사 대상 82개국 중 78위, 중동·아프리카 지역 17개국 중 15위 차지
 - EIU는 '23~'27년 알제리의 투자환경이 소폭 개선될 것이나 투자환경 순위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 '23~'27년 알제리 투자환경을 조사 대상 82개국 중 75위, 중동·아프리카 17개국 중 13위로 전망
 - 국영기업 주도의 경제체제, 투자 제도의 안정성 부족, 과도한 외환 통제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힘
- 헤리티지재단에서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알제리는 세계 176개국 중 168위를 차지
 -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음
 - * 모로코(97위), 사우디아라비아(98위), 가나(99위), 잠비아(101위), 나미비아(102위), 쿠웨이트(108위)
 - 재정 건전성, 투자자 유도, 자산 보호, 사법체계 효율성, 정부 투명성 등의 지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음

〈알제리의 주요 산업단지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

단지명	구분	규모	주요사항
세티프(Setif) 산업단지	산업 단지	1,369헥타르	• 위치 : 세티프(Setif) • 운영기관 : 정부 • 전기전자(특히 가전), 플라스틱, 건설자재, 제지 관련 기업이 분포된 알제리의 대표적 산업단지
알쥬(Arzew) 산업단지	산업 단지	2,800 헥타르	• 위치 : 오랑 • 운영기관 : 정부 •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 위주
시디 압델라 사이버파크	스타트업 육성	9,800 m ²	• 위치 : 알제시 시디 압델라(Sidi Abdellah), • 운영기관 : ANPT(기술단지개발청)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위주

자료: 코트라 알제무역관 종합

〈알제리의 주요 프로젝트〉

분야	지역	규모 (금액)	진행상황
태양광	다수 지역	2,000MW (1차) 15,000MW ('35년 까지)	• 프로젝트명 :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 주요사항 : 국영전력회사인 소날가즈(Sonalgaz) 주도로 12개 율라야에 걸쳐 1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총 2,000MW) • 2035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5,000MW의 태양광 발전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의 일환

자료: 코트라 알제무역관 종합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알제리 교역 동향

- 2023년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와 알제리의 교역량은 약 19억 3,000만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약 24억 2,000만 달러) 대비 20.2% 감소
 - 2023년 8월 말 기준 알제리는 한국의 48위 교역 상대국임

〈우리나라 對알제리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체 교역량	2,447	-16.0	1,158	-53.0	2,100	81.3	3,605	71.7	1,933	-20.2
수출	701	-26.2	254	-63.7	197	-22.5	233	18.3	170	33.0
수입	1,746	-11.1	904	-48.2	1,903	110.5	3,372	77.2	1,763	-23.1
무역수지	-1,045		-650		-1,706		-3,138		-1,593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0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 對알제리 수출 현황

- 8월 말까지 집계된 2023년 對알제리 수출은 약 1억 7,006만 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1억 2,787만 달러 대비 33.0% 증가(우리나라의 84위 수출국)
 - 2021년은 연간 수입액이 1억 9,700만 달러로 저조하였으나 2022년 18.3% 증가 하였으며 2023년도 30%대 증가세가 유지
- 2019년부터 완성차('18년 5억 3,000만 달러) 및 완성 전자제품류 수입 금지 조치, 외환보유고 방어 등을 위한 수입 억제 조치로 對알제리 수출 타격
 - 최근 수입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對알제리 수출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으나 수입 규제의 뼈대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 수입 규제 조치 중에는 수출대금 결제 방식 제한 및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 등도 포함되어 있음

〈對알제리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달러, %)

순번	품목명	2022년		2023년(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자동차부품	40,677,901	-10.1	41,560,589	70.4
2	합성수지	32,593,136	18.3	25,247,169	20.6
3	의약품	15,962,245	71.2	12,472,166	27.3
4	공기조절기	9,701,636	-10.5	7,172,027	-16.5
5	현금자동처리기	1,251,398	-78.7	7,166,959	617.2
6	가열난방기	8,289,249	5,691.0	6,319,729	172.7
7	자동제어기	1,824,852	705.3	4,503,569	1,819.7
8	기타의료위생용품	5,362,285	0.2	3,677,211	71.3
9	기타산업기계	8,586,333	110.3	3,661,125	-28.1
10	의료용전자기기	6,515,327	31.0	3,473,436	-15.9
11	펌프	6,141,324	181.0	3,347,653	15.6
12	X선및방사선기기	2,915,257	35.9	3,041,461	59.5
13	건설중장비	4,236,887	-54.2	3,031,699	34.6
14	철구조물	3,456,135	4.4	2,736,189	130.4
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712,608	146.5	2,502,170	6,553.3
16	기타플라스틱제품	3,065,435	51.1	2,442,756	29.4
17	타이어	1,498,788	-21.2	2,324,685	80.0
18	주철	590,628	-66.2	2,035,467	379.7
19	접시세척기	1,423,072	30.5	2,007,027	172.1
20	식품포장기계	2,332,087	1,403.0	2,002,178	19.0
총 계		233,307,485	18.3	170,058,690	33.0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MTI 4단위 분류 기준)

• 수출 호조 품목

- 주요 수출 품목(상위 20위) 중 17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품목과 의료 관련 품목의 증가세가 뚜렷

* 자동차부품(70.4%), 합성수지(20.6%), 자동제어기(1,819.7%), 펌프(15.6%), 건설중장비(34.6%)

* 의료 : 의약품(27.3%), 기타 의료위생용품(71.3%), X선 및 방사선기기(59.5%)

* 기타 : 현금자동처리기(617.2%)

- 수출 부진 품목
 - 자동차·전자제품 및 일반소비재는 수입 규제로 수출 미미
 - * 반도체, 자동차, 무선전화기, 화장품, 평판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 대표 수출 상품의 對 알제리 수출은 미미한 수준

對알제리 수입 현황

- 8월 말까지 집계된 2023년 對알제리 수입은 약 17억 6,000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3.1% 감소
 - 최대 수입품인 나프타는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수입도 급증
 - * 나프타는 2023년 8월 말 기준, 알제리로부터 12억 4,048만 달러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전체 나프타 수입의 11.1%를 차지하였으며, 알제리는 우리나라에 있어 UAE에 이어 두 번째 나프타 공급 국가임
 - * 천연가스 수입은 전년 동기(1~8월) 대비 171.9%가 늘어나 폭증세를 보임
 - *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27.5% 감소한 4억 1,696만 달러를 수입함

〈對알제리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달러, %)

순번	품목명	2022년		2023년(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나프타	2,492,228,435	95.7	1,240,475,239	-25.6
2	원유	827,904,879	35.4	416,961,020	-27.5
3	천연가스	38,329,804	0.0	104,204,063	171.9
4	어육	2,014,019	105.9	1,271,634	2.2
5	참치	356,686	137.6	259,022	78.3
6	과실류	14,830	92,587.5	64,804	337.0
총 계		3,371,797,128	77.2	1,763,334,150	-23.1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MTI 4단위 분류 기준)

▣ 한국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사례 및 시사점

- A사, 의료기기 제조 설비 수출
 - 의료기기 및 설비를 공급하는 A사,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알제리를 타겟으로 하여 2018년 10월 중동아프리카 사절단 참가
 - 이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기기 기업들이 알제리 정부의 현지 제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현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공략
 - 사절단 사업 종료 이후 무역관에서 발굴한 다수의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2023년 250만 달러 수출 성공
 - * 의료설비 공장 설립을 위한 설비 수출로 외환통제 등 어려움을 뚫고 알제리 수출에 성공
 - * 알제리 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KOTRA 사업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공신력을 얻고 시장을 공략한 점이 수출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몇 해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으로 알제리 및 북아프리카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함

☞ 알제리 시장은 정보가 부재하고 수입규제 및 외환통제 등으로 단기간의 성과가 힘든 만큼 KOTRA 무역관의 지원하에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

☞ 실패사례 및 시사점

- B사, 파트너의 계약사항 준수 의무 소홀로 손해 발생
 - 국내기업 B사는 수년간 큰 문제 없이 알제리 기업 C사에 제품을 수출해 왔으며 별 의심 없이 CAD조건(서류상환방식)으로 제품을 선적하여 수출을 진행하였으나 중간 기착 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품 전소
 - CAD조건인 경우 보험가입 의무는 수입자인 C사에 있었으나, C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C사가 수입 대금을 예치해 놓은 은행에서는 통관서류가 없는 것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
 - * 알제리의 경우 외환거래 통제를 위해 CAD조건 하에서도 통관서류를 제출해야 은행에서 대금 지급 절차에 착수함

☞ 알제리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장기간 믿고 거래를 한 파트너일지라도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체크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한국의 중요한 천연가스 및 나프타 공급국
 - 석유화학산업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주요 공급원이며 천연가스 공급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 * 알제리는 UAE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나프타 공급국임
 - 광물자원 분야의 잠재성이 뛰어나지만, 개발이 더디어 현재 한국의 주요 공급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중국이 알제리 광물 분야(철광석, 인광석, 아연 등)에 최근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나. 투자

▣ '23년 6월 기준 한국의 對알제리 누적 투자 규모는 약 2억 7,507만 달러

- 투자 금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순
 - 숙박 및 음식점 1억 8,000만 달러, 광업 5,800만 달러, 도매 및 소매업 1,700만 달러, 제조업 800만 달러, 건설업 50만 달러 등
-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건설업 18건, 도소매업 9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9건, 제조업 8건 순임
 - 2006년도 『한-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포 이후 건설업을 중심으로 알제리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알제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우리 기업 진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 * 2020년(504천 달러) → 2021년(538천 달러) → 2022년(394천 달러) → 2023년(400천 달러, 6월기준)

☞ 투자진출 성공사례 및 시사점

- LG전자, 현지 파트너와 협력으로 알제리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각
 - 90년대 초반부터 알제리에 진출한 LG전자는 초기에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알제리 가전 시장을 공략 하였으나, 가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각종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을 선택
 - 2000년대 초반부터 현지 파트너사와 기술제휴 형태로 에어컨, 냉장고, VCR,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가전 제품을 조립 생산
 - 2013년 Bomare사와 TV생산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조립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9월에는 알제리산 LG TV를 유럽으로 수출하기도 함
 - 2023년 기준, LG전자는 알제리 프리미엄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완제품 수출 위주였던 초기 비즈니스모델에서 변화해가는 시장 환경 및 정부 정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이 주요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유럽 등에 수출하기에 유리한 알제리의 지리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지 시장뿐 아니라 수출시장 공략에 성공할 수 있었음

다. ODA

▣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및 알제리 행정 및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ODA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 알제리 전자무역을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사업
 - 기간·사업예산 : 2021~2025년, 약 91억 원
 - 사업 내용 : 알제리 통관절차 효율화를 위한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
 - * 알제리 관세청과 25개 유관기관의 수출입 통관 관련 민원 처리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관련 기자재를 공급
- 알제리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3차 사업
 - 기간·사업예산 : 2020~2024년, 약 28억 원
- 알제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문가 양성 사업
 - 기간·사업예산 : 2021~2023년, 약 5억 원
- 알제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 기간·사업예산 : 2022~2024년, 약 5억 원

라. 협력 유망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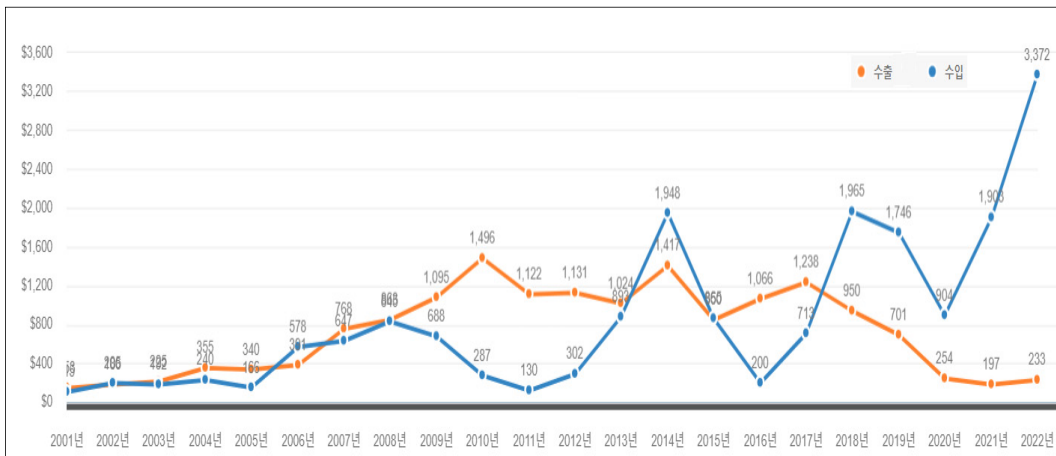
▣ 국가 간 협력 진행 및 유망 분야

- 2000년대 중반 양국 정상 교환 방문 이후 한국과 알제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고 공동위원회 및 경제협력 TFT 등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
 -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국가이며 공동위원회(장관급)와 경제협력 TFT(차관급)를 상호 교차로 개최해옴
 - * 그간 공동위원회가 3회, 경제협력 TFT가 9회 개최되었으며 '22년에는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됨

- 2018년 12월 이낙연 총리의 알제리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동위원회 개최 등이 검토된 바 있으나 2019년 이후 알제리의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지 못함
 - 양국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 경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 시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연계 개최 검토
 - * 제4차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일정 등 논의 중
- 무역·투자 분야 협력
 - 2022년 기준 양국 간 교역액은 36억 51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23년 8월 말 기준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한 19억 3,339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알제리는 한국의 48번째 교역 상대국임

〈한-알제리 교역 규모 변동 추이(2001~2022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양국의 경제 규모 및 협력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교역 확대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알제리는 나프타, 천연가스, 원유 등 중요 자원 및 원자재의 주요 공급국이며 2023년부터 자동차 수입 및 현지 생산이 일부 재개되는 등의 이유로 對알제리 수출도 증가세를 보일 전망
 - 對알제리 누적 건설 수주액이 18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프로젝트 시장이기도 한데 공기 연장, 미수금 등의 문제가 개선되면 우리 기업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임
 - * 여러 분쟁 등으로 3~4년 공기의 프로젝트들이 10년 가까이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함

- 각종 경제 행사 상호 초청, 고위급 인사 방문, 경제협력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ICT 분야 협력
 - ICT 분야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알제리의 ICT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있어 일정 부분의 역할 가능
 - * '18년 12월 이낙연 총리 공식 방문 시 알제리 관세청과 한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CUPIA) 간 알제리 관세 행정 시스템 현대화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
 - 전자정부, 공공 조달 시스템 등 유망 협력 분야가 다양한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협력 기회 마련 필요
- 건설·교통 분야
 - 도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철도 및 지하철, 스마트시티, 항공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이 가능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에너지)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에 걸친 전 분야에서 기술 협력 및 투자 기회 다양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에너지 효율화 분야 등이 유망
 - * 2018년 12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알제리인증원 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됨
- (제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료설비, 가전 등 현지 투자를 통한 협력 가능
 - LG전자, 삼성전자 등도 파트너를 통해 현지 제조 중

Chapter



진출전략



- ※ 알제리 정부의 본격적인 제조육성 정책 진행에 따라 원자재,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제조업 협력 강화
- ※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 현지 미소개 소비재 선제적 마케팅
- ※ 신재생에너지, 교통, 석유화학 등 에너지·건설·플랜트 분야 협력 강화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삶의 질' 제고에 중점 - 중고차·신차의 수입 일부 재개, 물가 안정 조치, 보조금 지원 등 • 러시아, 중국, EU와 협력 강화하며 실리 외교 추구 - 브릭스 가입 추진, 인프라 및 프로젝트 협력, 투자 유치 등 • 서사하라 문제를 두고 이어진 모로코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
E 경제 (Economic)	• (성장) '22년 3.2%에 이어 '23년과 '24년에 각각 2.6%, 1.6% 성장할 전망(EIU), 알제리 정부에서는 '23년과 '24년 4%대의 성장을 전망 • (외환보유고) 2021년 467억 달러에서 2024년 681억 달러로 증가 전망(IMF) • (물가) 2022년 9.7%에 이어 2023년 8.9% 전망되어 물가 불안정세 지속 • (경상수지) 2022년 이후 흑자세 유지, 2023년에도 42억 달러 흑자 전망
S 사회문화 (Social)	• 4,500만 명의 인구와 1인당 국민소득(PPP) 13,000달러의 내수시장 보유 - 중위 연령 28.2세의 젊은 국가이며 완만한 인구 증가세 이어질 전망 • 아프리카-유럽-중동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다양한 문화 공존 • 아랍국 중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문화를 가지고 있음 • 2019년 대선 전후 1년 넘게 '히락(Hirak)'으로 알려진 국민 저항 운동이 지속될 정도로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큼
T 기술 (Technological)	• 체크카드 및 인터넷 뱅킹 보급으로 디지털화 진행 • 최근 국가 주도로 스타트업 육성 - 약 5,000개의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며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여 육성 • 태양광 발전 확대, LPG 차량 도입 등 친환경 정책 추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알제리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상당 •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경험 (누적 수주액 180억 달러) •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가능	약 점(Weakness) • 알제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기적 대응 능력이 부족(단기 성과에 예민) • EU, 아프리카, 중동 소재 국가가 FTA 혜택을 받고 있어 가격경쟁상 불리 • 알제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 제도, 관행 등에 대한 정보 부족
기 회(Opportunity) • 제조, 스타트업 등을 육성하는 산업 다각화 정책 적극 추진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로 서구식 소비문화 정착 중 •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움직임 • 차량 호출,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화 진행	위 협(Threat) • 강력한 수입 규제 유지 및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 상존 •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 및 시장 잠식 • 알제리의 반외국기업 정서 여전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소재/부품/장비 협력 수요 발굴 • 한국형 제조업 생태계 구축으로 장기 협력 기반 마련	한-알 소/부/장 협력 기반 구축
ST 전략 (강점 활용)	• 알제리의 테스트 마케팅을 통해 인근국 수출 확대 • 수요 창출형 마케팅으로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	테스트 베드화로 인근국 수출
WO 전략 (기회 포착)	• 현지 투자 유치 유망 분야 적극 발굴 • 공공 프로젝트 민간 개방 기회 적극 활용	현지 유망 투자·프로젝트 시장 진출
WT 전략 (위협 대응)	• 수출 품목 다각화로 틈새시장 공략 • 민간의 수입 대체 수요 발굴 및 협력 기회 마련	수입대체산업 협력 기회 창출

2024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시장	○ 비즈니스 이벤트(상담회, 포럼, 전시회, 교류행사 등)를 활용한 진출 파트너 발굴 - 수입 규제 상황을 감안, 수입 규제 완화 분야나 알제리에서 생산되지 않는 틈새시장 위주로 공략
제조·산업 협력	○ 현지 제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설비, 장비 및 노하우와 관련된 협력 추진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알제리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 발굴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에너지 효율화 등
디지털 전환	○ 현금 사회 탈피, 스타트업 육성,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알제리의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추진 -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관세 행정 현대화 프로젝트 같은 ICT 프로젝트 진출, 중고물품·숙박 알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보급 등
건설 프로젝트	○ 공공교통 인프라, 담수화 프로젝트 등 새로운 분야로 확장 - 발전, 석유화학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

북아프리카
비즈니스 거점
확보

건설·에너지 협력에 더해 제조업·디지털
협력 강화로 새로운 기회 창출

3-1. 수입 규제 및 제조업 모멘텀 강화, 양국 민간 제조업 협력으로 극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알제리 정부는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자급자족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전,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이 일정 수준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 유지
 - 기존 관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제도, 알제리 내 미생산 인증을 건건이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토록 한 규제(속칭 'ALGEX 규제'), 각종 외환 규제, 송금 거래(T/T) 제한 등이 유지되고 있음
-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며, 현지산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 알제리 시장을 발판으로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의 시장 확대도 가능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산업 다각화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 유지
 - 알제리의 석유·가스 의존도 : 전체 수출의 90%와 재정 수입의 60%가량 차지
 - * 탈석유·가스 정책 추진으로 전체 수출 중 석유·가스류 비중은 최근 다소 줄어들고 있음
 - 자국 산업 보호와 외환보유고 방어 차원에서 수입 규제 조치를 활용
 - * 수출대금 지불에 있어 엄격한 절차 요구, 불요불급한 제품의 수입 억제 등
- 현지 생산품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 보장으로 현지 제조 수요 증가
 -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의 현지 생산 시, 경쟁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 발동으로 독과점적 공급자 지위 부여
 - * 알제리 내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경우 관세 감면
 - * 제조용 소재, 부품, 장비, 설비 등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현지 제조업 기반(제조 기술, 노하우 등)이 약해 외국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현지 생산이 거의 불가능
 - * 한국산 및 한국기업에 대한 현지 기업의 높은 평가로 단순 제품 수입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노하우 전수에 대한 수요 및 관심 다대
 - *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알제리 파트너를 통해 현지 생산 중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현지 제조생산 수요 발굴을 통한 기회 포착
 - 제조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기술 등을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현지 수요를 발굴
 - * 알제 무역관은 '21년부터 '알제리 제조업 육성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협력 수요 발굴 중
 -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최근 수입 규제가 완화되는 있는 품목에서 기회 포착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등을 이용하여 현지의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 파악
- 알제리 현지 생산을 넘어 장기적으로 인근국 수출 추진
 - 단기적으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주변국 수출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인 R&D 및 품질 향상 추진
 - * 현지 생산이 어려운 소재, 부품, 장비 공급 및 기술 개발 노하우 공유
 - * 알제리는 2023년부터 '수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알제리 수출기업들은 대체로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장비 도입에 적극적
 -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GAFTA, AfCFTA, EU-알제리 FTA 등을 활용 가능
- (유망 품목)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의료 부문과 중간재·산업재가 유망
 - 최근 규제 완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이나 현지 협력 수요가 충분한 석유화학, 전기전자, 의료부문 등이 유망하며 소비재는 규제에 주의 요망
 - * 공조기, 금형, 화학제품 등 중간재·산업재도 유망

☞ 우리기업 진출사례(지폐계수기 수출 C사)

- 알제리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수출 및 투자 병행으로 성과
 - C사는 알제무역관 지원으로 알제리 국방부 산하기관(ERSV)의 지폐계수기(450만 달러) 입찰에서 낙찰하였으며 이후 현지 합작회사 설립까지 추진 중
 - '21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2년 선적이 완료되었음에도 돌연 알제리 국방부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
 - 이에 알제무역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23년 초 알제리 국방부가 계약 해지 취소 및 정상 이행 재개 결정을 내림
 - 이후 현지생산을 희망하는 알제리 측의 제안으로 현지 합작사 설립 추진
- (사사점) 알제리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제품공급과 현지 생산에 대한 협력을 병행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유지한 것도 성공요인

3-2. 온/오프라인 플랫폼 활용, 현지 미소개 소비재 선제적 마케팅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Garden City 등 현대식 쇼핑몰을 통한 서구식 쇼핑 문화 확산
 - 체크카드 보급에 따라 점차 비현금 거래 증가
- Jumia, Ouedkniss 등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상거래 점차 대중화
 - 2022년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는 1억 2,0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
- 차량 호출(Yassir 등),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 메신저앱(텔레그램, 바이버 등),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앱의 활용이 보편화
- 젊은 인구 구성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니즈 상존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온라인화/디지털화로 차츰 변화하는 알제리의 소비재 시장
 - 인구 4,500만 명, 1인당 GDP(PPP 기준) 약 13,000달러인 알제리는 역내 국가 중 구매력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시장은 낙후
 - * 강력한 수입 규제 등으로 다양한 소비재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폐쇄성이 강한 알제리의 문화적 특성, 수입 규제 등에 기인한 것이나 온라인화/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차츰 변화하고 있음
 - * 젊은 소비층의 확대, 유통구조의 변화, 글로벌화의 영향, 니즈의 다양화 등이 변화를 촉진
 - Jumia, Ouedkniss 등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소셜미디어가 적극 활용되는 등 온라인화 및 디지털화가 진행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 마케팅 활동 전개
 - 중산층, 상류층 및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거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
 - 현지 특성에 맞는 제품과 소비자들의 니즈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
 - 유아 및 아동 용품,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이 비교적 유망
 - * 출산율이 높고 유아에 대한 지출에 저항이 적어 유아용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한류 영향으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임. 문구류,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도 경쟁력을 확보

- 소비재의 경우 수입 규제에 따른 장벽이 높은 만큼 수입 규제 현황과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필요시 현지 생산 협력도 검토 필요
 - 다수의 소비재 품목에 대해 수입 규제가 발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품목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규제 회피 방법도 고민해야 함
 -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각종 수입 규제 현황 및 적용 대상을 확인 가능
 - 수입 규제 회피를 위해 현지에 투자하는 방안도 필요시 검토가 필요함
 - *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나 합작투자 시에는 합작투자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함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서비스, O2O 시장 진출도 검토 가능

우리기업 진출사례(S사)

- 대기업인 S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으로 좋은 성과 유지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홍보·영업채널 확보로 가전,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확보
 - JUMIA 등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쇼룸 등 오프라인 접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제품 및 이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 및 홍보하고 있음
- (시사점) 각종 수입규제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중상층 및 젊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좋은 성과를 창출

3-3. 신재생에너지, 교통, 석유화학 등 에너지·건설·플랜트 분야 협력 강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알제리의 건설시장은 '22년 기준 413억 달러 규모로 향후 4년간 연 4%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GlobalData)
 - 신도시 개발 등 주거지역 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및 인프라 건설, 에너지 관련 건설도 큰 비중을 차지
- 對알제리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79억 달러(세계 14위)이며 교통,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함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고유가 및 재정 여력을 기반으로 알제리는 도로, 철도, 항만, 주택, 산업단지, 담수화 시설 등 정부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추진 중
 - 만성적인 하절기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알제리는 지속적으로 담수화 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현재 11기인 담수화플랜트는 '24년까지 19기로 늘어날 예정
 - * 현재 담수 생산량은 일 211만m³이며 '24년까지 150만m³ 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예정
 - 부그즐 신도시 등 5개의 신도시와 다수의 주거시설 개발 중
 - * 부그즐 신도시는 주택 7만채 등 각종 시설을 건설하여 35만명이 거주한다는 계획
 -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조공장 설립이 활발
 - 고유가에 따라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증세로 2026년까지 해외 기업들과 협력하여 3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태양광, 수소, 전기차 인프라 육성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12개 주(ولاية)에 걸쳐 15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총 2,000MW)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35년까지 총 15,000MW의 태양광 발전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
 - 알제리 정부는 『수소개발로드맵』을 통해,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개발에 주력하여 2040년까지 유럽 청정수소 수요의 10% 공급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추진
 - * 30~40TWh의 기체·액체 수소와 수소 유도체를 생산 및 수출한다는 계획
 - * '22년에는 알제리 국영기업인 소나트랙(Sonatrach)과 독일 가스회사 VNG가 그린수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해 국영 전력회사 소넬가즈(Sonelgaz)에서 2023년 300개, 2024년 7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할 계획

■ 진출전략 및 유망 분야

- 알제리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추진
 - 도로, 지하철, 수소 인프라, 스마트시티, 석유화학 플랜트, 환경시설, 담수화 플랜트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
 - *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제시하고 정부차원의 협력을 강화
 - 행정 디지털화 등 알제리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 적극참여
 - *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ODA사업 추진 경험 활용

☞ 우리기업 진출사례(D사)

- 2008년 진출한 이후 건설감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 알제 지하철 공항연장구간 토목 감리, 알제 지하철 1호선 C구간 공사감리, 부이난 신도시 건설공사 2지구 도시계획 용역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 지속적으로 알제리내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시사점) 알제리 진출 이후,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파트너와 신뢰관계를 구축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 완성차 생산 및 수입 일부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 알제리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연식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한국산 부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고 수요도 많음. 하지만 양산형 범용 제품인 경우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임
	경쟁동향	- 유럽산 고가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 사이 한국산 제품이 자리 잡고 있어 경쟁이 치열
	진출방안	- 유력 자동차 부품 수입상을 조기에 파악해 관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함
품목명 2		
지폐계수기	선정사유	- 알제리는 현금사회이며 대부분의 상거래에 현금이 이용됨. 따라서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지폐계수기에 대한 수요가 많음
	시장동향	-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통해 대량 구매하고 있으며, 동 제품을 현지 생산하기 위해 기술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경쟁동향	- 일본기업이 그간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지금은 한국기업의 활약이 더 두드러진 편. 다만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알제리 현지에서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경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
	진출방안	- 현지 유력 발주처 및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제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품목명 3		
화장품 원료	선정사유	- K-Beauty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화장품 수입 제한 및 현지 생산 추세로 완제품 수출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료 공급을 통한 수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장동향	- 원료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한 편이며, 예를 들어 비누, 샴푸 등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수입 수요도 많음
	경쟁동향	- 프랑스나 미국 제품이 전통적으로 강세이나 한류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진출방안	- 수입 혹은 기술 제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현지의 유력한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수립
품목명 4		
CCTV	선정사유	- 고질적인 주택난으로 최근 신도시 건설이 한창이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현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지 기업 중 반제품 형태로 생산하는 기업도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 일본, 독일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오고 있으나, 최근 중국산 제품이 중저가 시장에서 호령하고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생산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품, 장비, 노하우 등을 공급하는 방법이나 현지 기업에 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품목명 5		
사출성형기	선정사유	- 제조업 육성으로 산업기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자체 생산 능력 부족으로 수입 증가 추세
	시장동향	- 화장품, 의료장비, 의약품, 식품 포장재 등과 관련된 사출성형기 수입 증가
	경쟁동향	- 저렴한 가격, A/S 정책으로 YIZUMI, HAITIAN 등 중국산 제품 및 일부 튀르키예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진출방안	- APIS, GROUPE ENPC 등 사출성형기 직수입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검토
품목명 6		
의약품	선정사유	-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의약품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 아프리카 2위 규모의 의료시장이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경쟁동향	- 화이자, 사노피,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기업이 수입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범용 제품은 현지 기업이 생산 및 유통하고 있음
	진출방안	- 현 수입 제품보다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경우 진출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유력 제약기업인 SAIDAL, MERINAL 등과의 협력(기술 제휴 등)도 검토 가능
품목명 7		
농기계	선정사유	- 러-우 사태 이후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식량자급률 제고 추진
	시장동향	- 밀, 토마토, 올리브, 감자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경쟁동향	- 튀르키예가 농기계 수입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제품들이 경쟁하고 있음
	진출방안	- 현지 조달이 어려운 제품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진출을 검토해야 함
품목명 8		
임플란트	선정사유	- 알제리 국민들의 치과 보건인식이 향상되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알제리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쟁동향	- 프랑스, 독일, 한국 브랜드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뛰어난 편이나 유럽 제품은 FTA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불리함
	진출방안	- 현지 생산 추세에 따라 현지 생산이 가능한 파트너와 협력 방안 모색
품목명 9		
플라스틱 첨가제	선정사유	- 소득 수준의 증가와 현지 생산의 확대로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이 확대되는 추세임
	시장동향	- 가전,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첨가제 수요도 증가
	경쟁동향	- 유럽 제품들이 현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음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뢰성과 기술 지원체계 등을 어필하고 알제리뿐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10	
타이어	선정사유
	시장동향
	경쟁동향
	진출방안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온·오프라인 식료품 유통 서비스	선정사유	-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는 데 비해 식료품 유통 시스템은 낙후
	시장동향	- 일부 대형 기업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유통 시스템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 식료품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면 신선식품 유통, 알제리 농산물의 제3국 수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경쟁동향	- 현지 로컬 기업이 시장 주도
	진출방안	- 현지 식품 유통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
품목명 2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	선정사유	- 알제리인들의 높은 교육열 및 디지털화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콘텐츠 수요 증가
	시장동향	- 국공립 교육기관 및 기업에서 직업교육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초기 단계
	경쟁동향	- Ayrade, Beeform 등 현지 IT 기업에서 제작 중
	진출방안	- 우리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를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제공하거나 현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여 제공
품목명 3		
온라인 결제 서비스	선정사유	- 정부의 탈현금사회 정책으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보급 정책 추진
	시장동향	- 정부 주도로 현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 하지만 핀테크 관점에서 보면 아직 걸음마 수준
	경쟁동향	- 현지 금융당국과 현지 IT기업 등에서 개발 중
	진출방안	- 현지 IT기업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소개
품목명 4		
모바일 관광 서비스	선정사유	- 알제리는 풍부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코자 하나 관광객 입장에서는 관광정보 및 편의성이 부족한 상황
	시장동향	- 관광정보(예약, 교통, 입장권, 위치 등)를 제공하고 편의 기능을 장착한 모바일 서비스는 거의 없음
	경쟁동향	- 특별한 경쟁 동향은 없음
	진출방안	- 현지 정부 당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 검토
품목명 5		
모바일 전자상거래	선정사유	-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앱 사용을 위한 기반은 충분. 우리가 강점을 가진 중고 거래, 신속 배송, 패션, 화장품 등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앱 미미
	시장동향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일부 개발 중
	경쟁동향	- Jumia, Ouedkniss 등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모바일 앱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특화된 앱은 부족
	진출방안	-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진출 검토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 한-튀니지-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수출상담회

- 배경 : 한류 열풍으로 튀니지 내 한국 제품에 관한 관심은 높으나 한국 제품을 소개할 만한 기회가 많지 않음
- 기간 : 2024년 상반기
- 내용 :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소비재, 산업 기자재 분야의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

■ 한-알제리 제조산업 파트너십 지원 사업

- 배경 : 알제리의 완제품 수입 규제 강화 및 현지 제조업 생산 수요 증가
- 기간 : 2024년 하반기
- 내용 : 한국과 제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협력을 희망하는 알제리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지원
 - * 국내 기업과 화상상담 및 거래 지원, 현지 출장 시 미팅 지원 등
- 지원 분야 : 현지 제조생산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공장 시스템 구축 등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알제리 대선	2024.12	
튀니지 대선	2024.10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4년 재정법 발표	2024.1분기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Maghreb Pharma Expo(제약)	2024.2.5.~2.7	CIC(Alger)
SIPHAL(제약, 건강보조제)	2024.2	SAFEX(Alger)
ICT Maghreb(컴퓨터, IT기기)	2024.3	CIC(Alger)
Equip Auto(자동차부품, 장비)	2024.3	SAFEX(Alger)
PLAST Alger(플라스틱/고무 제품)	2024.3.4.~3.6	CIC(Alger)
SIMEM(의료기기)	2024.4.17.~4.20	Convention Centre (Oran)
Dzajagro(농축산물, 식품)	2024.4.22.~4.25	SAFEX(Alger)
Batimatec(건축 기자재)	2024.5.5.~5.9	SAFEX(Alger)
SIEE-Pollutec(환경)	2024.6.2.~6.5	CIC(Alger)
Foire Internationale d'Alger(종합국제박람회)	2024.6	SAFEX(Alger)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민준	관장	알제 무역관	+213-2347-3911	minjoon@kotra.or.kr
8			본사 000팀		

2024 알제리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